**막0125 Note**

**◆영(靈) 다루기 : 사람의 영과 마귀의 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영을 다루실 때는, 꼭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다루셨습니다.

Ω마2032. 이에 예수께서 멈춰 서시니라,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이르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너희가 원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함부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을 다루실 때는 다릅니다.

마귀의 영에게는 그들의 뜻을 물음이 없이, 그냥 명령하여 다루셨습니다.

막0125. 이에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시니라, 이르시되, 잠자코 있으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간단하게 성경 두 구절만 올렸습니다만,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을 함부로 다루시지 않지만, 마귀의 영은 그들의 뜻에 상관없이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 안에서,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영에 권세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내가 그녀 위에 권세를 행사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 위에 권세를 행사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을 내가 다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은 하나님의 종이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중에서야 그 여자가 그 전남편인 이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도시에

와서 그에게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나는 주의 종인 이 목사에 대하여 방해하는 마귀에 대하여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 사람도 원하는 경우에만 기도가 역사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만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내일 당장 천년왕국으로 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하나님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약되는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때, 또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말하는 것에 따라 행동 할 때 결과는 나타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 치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옮겨지면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무엇인가를 하도록 당신을 밀어붙이고 몰아가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격려하고 고무하고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과 자유의지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책에서 인용>